

후마니타스 공청회

출범 7년차 후마,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다

후마 재도약 특별리포트 발표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신임학장 취임과 함께 가시화 된 ‘후마니타스 칼리지 재도약’ 프로젝트를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2011년 출범해 지난해 대형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한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이번에는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는 올해 7월 ‘재도약을 위한 특별보고서 위원회(특보위)’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캠 이영준 학장은 “후마가 초창기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현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번 재도약을 통해 후마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Education에서 Learning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Education은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고 학생들은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Learning은 학생의 능동성에 기반 해 각자의 생각을 도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심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여타 대학들이 너도나도 기업논리에 입각한 실용적 학문을 향한 2011년, 우리대학은 ‘대학다운 대학’을 지향하고자 ‘후마의 출범’을 통해 인문학을 선택했다. 당초 후마는 ‘학문과 평화의 새로운 전진’과 ‘국내 대학을 선도하는 진정한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으나 현실의 벽은 녹록치 못했다. 후마가 출범되기 이전과 그 직후부터 강좌 수 부족,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양교육의 차별화 등의 문제점이 속속 제기됐다. 이 문제들은 출범 7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후마의 고질 병으로 남아있다. 특보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후마니타스 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리포트’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후마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여는 글로벌 교양교육’이다. 이는 이전의 비전인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 되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캠 이영준 학장은 “새로운 비전이 이전과 다른 점은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다”며 “이전 후마가 ‘지식의 전수’하는 면이 강했다면 이번의 재도약은 학생의 목소



지난 20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후마니타스 공청회에서 서울캠 이영준 학장이 재도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수형 기자)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
토론수업과 절대평가로
중핵교과 강좌 당 학생 수 감축
단과대학, 교양교수 교류 활성화



리로 후마를 만들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후마에서 내놓은 혁신안은 크게 3 가지다.

먼저 학사운영 부분이다. 지난 20일 서울캠에서 열린 후마 공청회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짚었던 문제점은 ‘일방향적,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후마는 전 교과에 ‘발표-토론-글쓰기’ 방식을 도입하고,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5일 국제캠에서 열린 ‘후마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서 특보위 이준태 교수는 “교양교육은 고민과 토론이 주된 수업 내용이 된다”며 “평가방식에 절대평가, 표준학점제, Pass/Non-pass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마의 혁신안 중에는 현재 약 70~80명에 해당하는 중형강좌를 줄이고 1,000명 이상의 대형강좌와 50명 이하의 소형강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강좌 개발을 활성화 해 1,000명 이상을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명 이하의 소형강좌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AI시대 미래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및 온라인 영어강좌 등이 계획에 있다.

두 번째는 중핵, 배분이수, 자유이수 등 교과운영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핵교과에서는 강좌 당 수강인원 수 감축을 제시

했다. 대학본부가 그간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강좌 수 증설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음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시도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학장은 “글쓰기, 발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강좌 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며 “중핵교과 강좌 당 수강인원을 현재 45명에서 35명 선으로 줄여 21개의 강좌를 더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후마는 배분이수과목이 전공과의 간격을 좁히고, 과목 자체의 발전을 위해 단과대학 교수와 후마 교수가 함께하는 ‘배분이수과목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배분이수교과와 중핵교과를 연동시켜 중핵교과에서 다른 과학혁명, 계몽 등에 대한 주제별 심화과정 개발이 계획 안에 들어갔다. 자유이수교과에서는 ‘학문’보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에 집중해 예술·축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CSC와의 협력으로 문명탐방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마 혁신안에는 현재 후마 교수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담았다. 이번 해 6월에도 “저희는 후마의 중핵교과 소속 객원교수·시간강사들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대자보가 붙어 비전임교원 처우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오랜 비전임교수 처우문제를 청산하고자 이번 혁신안에는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인사 위원회 상시운영’ 등이 포함됐다.

10월 셋째 주(10.16~10.2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한솔그룹 채용면담	10.16(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한솔그룹 채용면담	10.17(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입사지원서 작성 포인트	10.17(화) 12:00~14:00	청운관 B117	취업스쿨
금융전략사업단	10.17(화) 17:00~18:00	청운관 619호	취업스쿨
합격하는 자소서작성법!	10.18(수) 13:00~15:00	청운관 1층 409 상당실	취업스쿨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별로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신청 학생과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함.

* 출석 협조전달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및 출증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오늘의 제법학관 107-2호 청운관 6번 상당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상단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당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주의사항	- 상당 당일 취소 불가(상당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서 출석하여 저첨(필수)			

3.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채용 리커링

신청 기간	일시	모집 대상	신청방법
2017.10.13. ~ 10.29 24:00까지	홈페이지 참고	파라다이스 온라인 지원 (http://recruit.paradise.co.kr)	
09.26(화) ~ 10.16(월) 14:00까지	채용사이트 내 지원 결과에서 직접 확인	동원그룹사이트 (http://recruit.dongwon.com)	
2017년 10월 중 (주말 공고 계약 예정)	홈페이지 참고	서울아산병원 온라인접수 (http://recruit.amc.seoul.kr)	
2017.10.10.(화)~10.23(월) 18:00까지	홈페이지 참고	한솔그룹 채용홈페이지 온라인지원 (http://recruit.hansol.com)	
~2017.11.12까지	홈페이지 참고	EN 한영 홈페이지 (http://www.eny.co.kr/ko/careers/students)	

자세한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w.khu.ac.kr>) 및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연락처 02-961-0167~8, jw@khu.ac.kr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예술의전당 음악당 브랜드 SAC CLASSIC의 두 번째 페스티벌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

2017년 11월,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이 디시금 교향악단의 축제로 분주해집니다! 올해 제4회째를 맞이하는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가 11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4월 개최된 <교향악축제>에 이어 예술의전당 음악당 브랜드 SAC CLASSIC의 두 번째 축제인 SAC FESTIVAL로 관객들을 만나는 <대학오케스트라축제>는 정장 차인 우리대학과 함께 예술 축제를 즐기는 연주자들이 콘서트홀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입니다.

젊음, 거장을 연주하다!

국내 대표 7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참가!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는 젊음, 거장을 연주하는 대학 7개 대학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합니다.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각 대학의 7개 대학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감각을 통해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를 엮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 R. 슈트라우스, 사이골프, 베를리오즈 등 거장의 음악은 이들로 즐길 때를 살아가는 20~30대 청년층은 물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2017 예술의전당 SAC CLASSIC FESTIVAL

2017 예술의전당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2017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2017. 11. 1(수) ~ 8(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경희